

2003

전여대협 겨울 수련회 자료집



대학 :

직책 :

이름 :

전여대협 수련회 기간동안 이렇게 살아요~!

시간		21일	22일	23일
오전	7:00		일어나요!	일어나요!
	8:00		아침식사	아침식사
	9:30		강연 및 토론 - 새로운 시대 우리는 이런 일 꾼이 되어요!	수요시위 교양, 준비 일본 대사관 앞으로 이동!
	12:00		휴식 및 간식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 께하는 수요시위
12:30	강연 및 토론 - 2003년을 이렇게 살아볼까요?			
오후	3:00		선택강연 및 토론 - 성매매	여성노동자 투쟁 결함 혹은 명 동성당 총력운동 단식농성단 방 문
	5:00	모이자~! 서로 인사하기	- 새내기사업, 소모임사업	
	5:30	강연 - 2002년, 이런 일이	저녁식사	여러분 안녕~
	6:30	여성노동자 관련 영상	선택강연 및 토론 - 성폭력 - 호주제	
	9:00	강연 - 남북여성통일대회를 통 해 본 북녘 여성과 2003년 여성 통일운동의 전망	이야~뒷풀이 시간이닷!	
	10:30	토론		

[글 싣는 순서]

- 전여대협 수련회 기간동안 이렇게 살아요~ ... 1
- 9기 전여대협 총노선 초안 ... 2
 - 정세전망 ... 2
 - 투쟁과제 ... 10
 - 대중의식화 총노선 ... 14
 - 조직사상운동 총노선 ... 17
- 수련회 총화서 ... 20

9기 전여대협 총노선 (초안)

정세전망

전반정세

1. 2002년 정세 총괄

2002년은 미국의 긴장고조정책, 6·15 공동선언 방해에 맞선 7천만 민족의 대단결이 빛났던 한해였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초부터 이북을 소위 '악의 축'으로 명명하고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핵태세보고서를 통한 이북을 포함한 미국의 '적대국'에 대한 선제공격 군사전략을 마련하였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림팩 훈련 등 훈련명도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대규모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이북에 대한 긴장고조와 위협을 강도높게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수로 완공시기인 2003년이 다가옴에 따라, 10월 조·미 정치협상 이후 이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허풍이 퍼져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하여, 이북에 대한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소위 '핵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횡포는 결국 94년의 제네바합의를 사실상 파기하였습니다.

이남에 대해서도 2월 부시가 방한하여 '주한미군 영구주둔' 운운하며, 이남에 대한 영구 지배음모를 노골화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효순이, 미선이를 장갑차로 깔아죽이고도 사과 한마디없이 살인미군에게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악의 축' 망발로 남북관계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어온 미국은 남북청학대회, 여성대회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면서, 심지어는 남북철도, 도로연결을 방해하고, 금강산 관광객도 주한유엔사령부의 '사전허가'없이 통행할 수 없다는 등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에 있어서도 음으로 양으로 막아나서면서, 6·15 공동선언에 대한 방해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악랄한 행동에 우리 민족은 7천만의 거족적인 투쟁과 대단결로 맞섰습니다.

지난해 동계올림픽 금메달 강탈로 시작된 미국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의 표출은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으로 더욱 거세차게 불타 올랐습니다. 이러한 이남 민중의 반미감정은, 효순이, 미선이를 깔아죽이고도 사과 한마디 안하더니 굶기야는 살인미군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으로 폭발되어, 사상 최초로 주한미대사관을 에워싸는 범국민적인 촛불시위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남 민중의 대중적 반미투쟁은 이전까지 미국의 지배권 안에 속해있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전세계를 깜짝 놀래키며 이북, 해외에까지 번지고 있으며, 작은 농촌마을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

중적 반미투쟁은 미국으로 하여금 이남을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북에 대해 직접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이북은 '선군정치'라 불리는 군사력의 강화로 미국의 전쟁위협을 결정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북은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독일, 벨기에 등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제3세계와의 관계도 확대하는 등 계속적으로 진행해온 전방위적 외교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외지를 전세계에 과시하는 '아리랑' 축전도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이러한 이북의 일련의 행동들은, '반테러전선'으로 자신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국가들을 다시금 제 손아귀에 넣으려 했던 미국을 역으로 포위하는 과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핵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억지주장과 전쟁위협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핵확산금지조약을 통한 세계지배정책에 파탄을 내며 공세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 민중들의 투쟁은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빛을 발해왔습니다. 남북청년학 생통일대회, 여성대회, 통일아시아게임 등. 더군다나 최근 미국이 집착하고 있는 '핵소동'에 이르러서는 각계민중들이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 포기 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의 과정은 남과 북의 우리 민족 대 미국이라는 대결구도로,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분쇄하고 6·15 공동선언을 더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가려는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 2003년 정세 개괄

2002년 힘차게 진행되어온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는 2003년 더욱 치열한 양상을 띠고 전개될 것입니다.

1) 2003년은 이북과 미국의 최후대결전이 펼쳐질 것입니다.

미국의 전쟁불사 발언, IAEA의 유엔안보리 상정 등으로 미국은 계속되어온 핵전쟁위협의 고삐를 더욱 당기면서, 이북이 열어놓은 조미정치협상을 계속적으로 미루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94년 제네바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미국이요, 결국 제네바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도 자기네들인 미국으로서는 조미정치협상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제네바합의를 대신하면서 더욱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체제를 합의하는 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미협상을 최대한 미루면서도 미국의 세계지배전략 중 하나인 핵확산금지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북에 대한 위협을 더욱 강도높게 할 것이며, 이남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을 영구주둔시켜 이남을 더욱 장악지배하기 위한 음모를 벌여놓을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이북의 대응은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북은 이미 미국의 핵확산금지체제 붕괴를 예고하며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억지주장과 전쟁위협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확산금지조약을 통한 세계지배정책에 파탄을 내며 공세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군정치'로 표방되는 이북의 군사력은 이미 98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를 암시하는 '백두산 1호' 발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직접적인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클린턴 정부시절 전쟁도발 1시간 전까지의 상황까지 갔다가 결국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을 이길 수 없다는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미국이 전쟁을 포기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한 부시 정부라 할지라도 쉽사리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북의 군사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미국을 조미정치협상에 끌어내오고, 미국으로부터 북미불가침조약을 받아내기 위해 경주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과 이북의 대결로 2003년의 정세는 극단점으로 치달으며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고, 여기서 미국은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큰 변수로 정세에 작용할 것입니다.

이미 이북이 미국에 조미정치협상을 제안한 상황이며, 결국 미국이 걸고넘어지고 있는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미정치협상은 필수적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하기에 2003년에는 조미고위급회담이 진행되면서 조미간 정치군사적 문제가 일괄타결되느냐, 아니

면 우리 민족의 운명을 내어주느냐 하는 대결전이 진행될 것이며, 이 대결전의 결과에 따라서 큰 폭의 정치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2) 이남민중의 반미투쟁을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반미자주역량으로 모아가야하며, 이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키는데 크게 작용하면서, 한반도 정세변화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2002년의 획기적 사변은 바로 '광범위한 민중들의 반미투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계올림픽 금메달 강탈사건으로 불이 붙고 살인미군 처벌투쟁으로 폭발된 민중들의 대규모 반미투쟁은 각계각층 대중들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이남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범죄를 규탄하며 철군을 요구하는 대중적 반미투쟁은 이북과 해외동포사회에서도 힘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 북, 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중적 반미투쟁의 동원규모와 투쟁열기, 그리고 지속성과 다발성을 생각한다면, 한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끈질긴 대중적 반미투쟁을 전개하는 위대한 자주민족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네바합의를 깨뜨리고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범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규탄투쟁도 더욱 크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남에서 반미투쟁의 대중화 추세는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며, 광범위한 민중들의 반미투쟁은 곧 광범위한 반미자주역량으로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핵소동'의 긴장상태 속에서 진행된 대선에서 미국이 '소산호' 문제를 정치화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미국에 대한 반감을 오히려 더 드러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민중들의 반미자주역량으로의 힘이 커질수록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점차 미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미국의 정책에 장애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3)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대단결에 기초한 민족공조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파탄내는데 있습니다.

2003년의 조미대결전은 단순히 이북과 미국의 싸움이 아닙니다.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미국과 이에 맞서 민족의 자주를 지키고자 하는 7천만 민족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민족공조를 통해 북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6·15 공동선언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이행해가는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급속도로 확산된 민족대단결과 반미기운은 미국이 두려워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북에 대한 적대적 이데올로기가 유명무실화되고 전쟁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기 보았듯이 미국의 내정간섭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특사 방북이라든가, 계속된 남북장관급회담, 민간급 통일대회 등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고 이행하기 위한 남북간의 의지가 모아졌었습니다.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것은, 곧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며, 미국의 위협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공조로 북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북미불가침조약은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핵문제' 해결의 가장 정당한 방도일 뿐만 아니라, 현재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없애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이남의 군수통수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북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를 소멸하는 것으로 되므로,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6·15 공동선언을 더 높은 수준에서 이행해가는 과정으로 모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4)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남의 반미자주역량을 온 국민의 반미자주역량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옵니다.

또한 새 정권의 수립으로 인한 국민들의 민주주의적 개선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반미자주세력은 주체역량을 비약적으로 축성해야 하는데, 여기서 한총련의 이적규정을 벗는 것은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철폐는 사회민주화를 실현하는데 기본적인 것이며, 현재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 및 반미자주화 투쟁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국면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기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벌여가야합니다.

5) 전여대협은 살인미군 처벌투쟁을 더 많은 여학우들과 함께 진행하고, 북미불가침조약체결의 요구를 여학우들 속에서 얘기하면서 6·15 공동선언을 더욱 주체적으로 이행해가야합니다. 또한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투쟁에 누구보다 앞장에 서야할 것입니다.

반가부장제 정세

1. 2003년 반가부장제 정세 및 투쟁에 대한 총적 전망

반가부장제 정세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성운동계에서 얘기해왔던 성매매방지법, 호주제폐지 등의 사안에 이전보다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여대협은 무엇보다 학우들이 쉽게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학내 반성폭력 운동을 가장 중심에 놓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진행해왔던 것보다 더 다양한 내용의 반가부장제 투쟁을 대학별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매매와 호주제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좀 더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반가부장제 운동은 대학별 학우들의 의식수준에 기반하여 다양하고 창조적인 각도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별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전여대협 총노선에서는 개괄적인 정세와 기본적인 투쟁에 대해서 제출합니다.)

- 반가부장제 투쟁에서 전반적으로 꼭 진행해야 할 것은, 학우들의 의식을 파악하는 사업입니다.
- 또한 일상의 가부장제를 일상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학우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반가부장제에 대한 여학일꾼들의 전문성이 낮은만큼, 반가부장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2003년 반가부장제 정세

1) 반성폭력 운동

반성폭력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수록 더욱 다양한 곳에서, 더욱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신고되고 공개화됩니다.

2003년에는 지난해보다 더욱 다양한 계급계층에서 더욱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불거져나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성폭력 운동은 성폭력 사건을 공개하고 이를 해결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공동체(예를 들면 대학, 직장과 같이) 내에서의 성폭력적인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것이며, 공동대응과 연대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반기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여성계의 요구로 1993년에 제정된 이후 2번의 개정을 거쳤으나, 여전히 성폭력의 정의가 협소하고, 피해자 보호절차가 부족하며, 친고죄만으로 성범죄 고소가 성립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토론회, 의원입법 등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에 대한 대응활동이 올해에는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대책위원

회 등 각종 성폭력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기간 진행되어왔던 공동체 문화 속의 성폭력,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더 많은 대학에서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인 현실과 관련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2) 학내 반가부장제 투쟁 및 여성 학자투쟁

(학내 반가부장제 투쟁은 반성폭력 운동과 여성문화를 가장 중심적인 과제로 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반성폭력 운동을 제외한 학내 사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학내 사안과 관련한 반가부장제 투쟁은 여학우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의의가 큼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중요성만큼 다양한 사안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몇몇 대학이 아닌 전체 대학 차원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끈질기게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도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후에는 학내 사안과 관련한 반가부장제 투쟁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학내 반가부장제 투쟁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대학별 상황에 따라 정세를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이남사회 대학의 여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대학별로 여학우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절실한 문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별로 여학우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내 반가부장제 정세를 파악하고, 학내 반가부장제 운동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과 대학교원임용 양성평등위원회 설치를 포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즈음부터 국·공립대 신규 교수 채용 때 여교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3년마다 채용 목표를 제시하고, 해마다 그 이행실적을 공표하는 여교수 채용 목표제가 도입되게 됩니다. 법안에는 채용계획 수립만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채용비율 등은 새로 구성되는 대학교원 임용양성평등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각 대학본부에 이를 구체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매매 근절 투쟁

올해는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인수위는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올해 여성분야 우선 실천사업으로 상정하였으며, 상반기 안에 성매매방지 종합대책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어설픈 성매매 실태조사를 진행한 여성부에서 이미 '민간단체와 함께 조사를 하는 등 조사방법과 내용 등을 보완해 2003년부터 다시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며, 여성단체 등의 여성조직이나 개별인사 등이 전국 곳곳에 대한 성매매 실태조사를 계속적으로 벌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성매매의 심각성과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유린 실태는 일부 밝혀졌지만, 전국적으로 그 실태가 밝혀져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재판의 국가배상 판결에 힘입어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지난 4월 국가와 군산시, 포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국가와 포주들의 유착관계 등이 밝혀질 것입니다.

2001년 이후 계속적으로 진행해왔던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 압력활동 등 입법 추진 활동이 주로 진행될 것이며, 성매매의 심각성과 성매매방지법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 토론회 등 대국민 홍보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해 이전보다 관심이 더 높아지고 활동도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성매매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그리 높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계는 성매매에 대한 의식화를 중심으로 하면서,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에 대한 법정소송투쟁을 진행하며 국가의 성매매 방지 책임을 묻고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일깨워주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3년에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투쟁 외에도, 성매매 방지 및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모색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활동이 더욱 왕성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성매매 근절을 위한 토론회 등 구체적 방도에 대한 모색작업은 진행중에 있지만, 2003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등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 프로그램이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활동이 민간차원으로나, 정부 차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자가 헌법재판소에 낸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위헌신청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1년에 2번 공개되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은 소소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4) 호주제 폐지 투쟁을 비롯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대한 투쟁

호주제를 폐지해나가는 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당선자가 '호주제 1년 내 폐지'라는 공약을 세우면서,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정부측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성부는 호주제를 3단계에 걸쳐 폐지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호주제 폐지 전 단계로 친양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2004년 총선 직후 호주제 폐지 추진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단체 학계 법조계 여성부 등을 주축으로 대책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가 호주제 폐지 실행시기를 내년 봄으로 정한 것은 각계 의견을 망라하는 시간이 필요한 데다 총선 전 호주제 폐지를 추진할 경우 보수층의 반발로 정치권이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2001년 상반기 호주제에 의한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내린 후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었던 호주제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이 올해 내려질 전망이다. 호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법률가들이 그 위헌성에 대해서 강변해왔기 때문에 호주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호주제 폐지에 반대해온 세력들이 있으며,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주제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대책위를 총선 이후에 꾸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서 어느정도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고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여성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체 입법안은 '가족별 호적편제'로, 이제까지 호주제 폐지 시민모임 등에서 주장해온 '1인1적제'와 다릅니다.

친양자제도의 경우에는 도입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계속 그래왔듯이 '친양제제도'의 도입과 '호주제'의 폐지 자체가 치권 세력다툼 등에 밀려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의와 정책 결정을 하는데 얼마든지 난관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모으기 위한 캠페인과 문화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특히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질 것이며, '가족별 호적편제'와 '1인1적제'에 대한 논란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대책기구를 구성하게 될 전망이며,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한 토론회와 의원입법 추진 활동을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 운동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주제 폐지를 주제로 한 미디어활동도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된 이후, '위헌'으로 판결이 나온다면 이에 대해 국민적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내용을 얘기하게 될 것이며, 이를 실제로 폐지하기 위한 의원입법활동을 더욱 왕성하게 펼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전여대협 또한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여론을 불러일으키는데 함께 해야 합니다.

호주제 외에도 성차별적인 유족연금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활동이나, 부부공동재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활동 등이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5) 여성 평화·통일운동

한반도의 정세가 더욱 격해질 2003년도이기에 여성운동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업과 투쟁이 많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핵위기의 주범인 미국을 규탄하는 투쟁에서부터 반전평화운동, 평화군축운동 등의 투쟁이 각계각층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24 평화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등이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계속되어오고 있는 살인미군 처벌투쟁과 관련해 2003년에도 여성들의 투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SOFA 개정에 있어서 여성인권보호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활동도 만들어질 것이라 보고합니다.

또한 지난해 진행되었던 역사적인남북여성통일대회의 성과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여성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와 활동이 더욱 활발히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 여성의 정치세력화

지난해 6·13 총선과 12·19 대선에 이어, 2004년에 진행되는 총선을 대비하여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움직임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개발기구의 '2002년도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의 여성의석 비율은 5.9%로 조사가능국 161개국 가운데 겨우 131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 여성국회의원의 수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할당제를 포함한 선거 관련 법제도적 보완, 정치관계법 개정 등을 위한 공청회 등의 활동이 이어질 것이며, 정부 행정기관을 비롯해 공직사회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감시활동 등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2004년 총선을 직접적으로 대비하여 여성후보들을 발굴하는 사업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여성예산확대운동도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예산확대운동은 노무현 정권의 공약이행에 대한 감시활동과 함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할 것에 대한 요구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단순히 선거시기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2004년 총선은 더욱 구체적인 여성민중 속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리한 계기가 될것이기 때문에 전여대협 또한 이를 준비해가야할 것입니다.

7)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

2003년에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음모는 계속될 것이며, 일본 정부에 의한 사과와 배상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2003년에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합니다.

ILO는 유엔의 다른 기구와 달리 총회 의결절차를 통해 회원국에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진 권고채택 및 조사단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정부에 상당한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회원국으로서 1932년에 이미 제29조 강제노동협약에 비준했기 때문에 조약을 준수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29조 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일본정부로부터 공식 사과와 피해자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구속력 때문에 일본측은 막강한 로비력을 발휘하며 안건 상정을 막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측의 로비로 인해 번번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비로소 노동자그룹 회의에서 잠정 의제로 채택되면서 '2003년에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일본의 협약 제29조 위반 사례를 다루기로 노동자그룹과 사용자그룹이 공동선언하기로 했다'고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전례에 비취볼 때 이 전망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사용자 그룹의 적극적 협력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노·사·정이 단결해 반대 로비를 벌이는 일본측에 의해 다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003년 ILO총회에서 '위안부 의제 채택' 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측 노·사·정 대표단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지만 일본에 비해 우리 대표단의 협조관계는 상당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적인 문제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끌어내기 위한 유력한 방도가 바로 계속 추진중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입니다. 특별법 제정은 그 자체로도 진상규명 작업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근거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다, 특별법을 제정하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법적인 강제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위안부' 문제 해결투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ILO 총회는 매년 6월 초에 개최되므로 이때를 전후하여 총회에서 '위안부'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문혀있었던 일제시대 '기업위안부'와 관련해 당시 일본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위한 '기업위안소' 운영을 정책적으로 장려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가 공개돼, 이와 관련하여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을 기업위안소 위안부들에게까지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8) 기타 반가부장제 투쟁

대학 내,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체적 여성의 현실과 관련한 문화운동은 더욱 확대발전할 것입니다.

TV, 영화, 언론 등의 미디어에 대한 기동적인 문제제기는 계기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여성민중들의 삶**

대중투쟁과제

6·15 공동선언 이행 및 반미자주화 투쟁

1. 전민족적인 반미공동투쟁으로 미국의 전쟁책동 막아내자!

1) 불평등한 SOFA협정 개정, 주한미군 철거투쟁

① 살인미군 처벌투쟁은 끝장을 볼때까지 계속 진행해야 하며, SOFA 협정 개정을 점차 주한미군 철거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② 여성들의 반미의식화, 여학우들의 구체적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도

③ SOFA개정에 여성인권보호조항 신설

④ 여학우들이 자신의 처지에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미국을 반대할 수 있도록 총여학생회의 독자적인 내용과 계획을 마련해야한다.

2) 반미반전투쟁

3) 북미불가침조약 체결투쟁

2. 민족공조로 6·15 공동선언을 더 높은 수준에서 이행하자!

3. 한총련 이적규정을 반드시 철회하자!

반가부장제 투쟁과제

1. 반성폭력운동

1) 학우들의 의식지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의식조사 등

2)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전문성을 높입니다.

3) 학내 성폭력적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생활문화운동

① 성폭력 의식/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상화

② 계기를 잘 살려

예1> 여장미인대회가 열리는 모꼬지를 앞두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운동

예2>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대대적인 강연회

4) 대학본부 차원의 반성폭력 정책 마련 요구 - 대학별 상황에 맞게

예1> 학내 성폭력 상담실 개설 및 활성화

예2> 학내 구성원 전체에 대한 연1회 반성폭력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방도(이는 이미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대학도 많습니다. 특히 학교직원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은 필수적으로 진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학교측에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나, 반성폭력 교육을 교원, 직원, 학생들의 정규교육과정에 포함

5) 모든 사업에서 반성폭력의 내용을 일상화하고, 의식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냅니다.

- 대학별 의식화방법에 따른 반성폭력 기본 의식화

- 성폭력 특별법에 대한 의식화,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등 성폭력 관련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의식화

6) 학칙 개정 사업

- 대학별 학칙을 개정하기 위한 토론을 꼭 진행합니다.

- 학우들에 대한 의식화

- 대학별 행정체계에 따라 대학에 개정안 요구

- 전여대협 차원의 개정안 마련 / 교육부에 공동 개정안을 총여학생회 공동의 명의로 요구 (가)

7)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 학내 반가부장제 투쟁 및 여성학자투쟁

1)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국공립대)

① 각 대학별로 대학본부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② 여성교수 채용현황 및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화

③ 대학본부에 대해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 및 구체적 채용목표 제시에 대한 강제

2) 그 외 대학별 상황과 학우들 의식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학내 반가부장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1>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및 토론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2> 여자화장실 실태조사와 예산확보, 여성기금조성 등 얼핏 보기에는 단순한 복지사안으로 보이는 것일지라도, 본질적으로 보았을 때 여학우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제의 문제인 것이 우리 주위에 잘 살펴보면 많다. 대학별 상황에 맞게 사안을 고민해보고, 학우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3. 성매매 근절 투쟁

1) 성매매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토론해나가자.

① 대학별 의식화사업의 각종 방법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학우들의 왜곡된 인식을 고쳐나가자. 예를 들면, 정기적인 설문조사, 사이버 토론광장, 화장실 백지자보 등

② 이 과정에서 성매매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려가자.

2) 지역에서 성매매 반대운동 및 피해여성지원활동을 하는 단체와의 계기적 연대사업

4. 호주제 폐지 투쟁

1) 호주제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구체적인 의식화

2)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학우들과의 구체적인 실천활동

예1> 학우들에게 부모성 함께쓰기운동 배지 나눠주기,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부모성함께쓰기운동하기 등

5. 여성의 정치세력화

1)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전문성을 높인다.

2004년 총선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관련해 대학별 상황에 맞게 전문성을 높여낸다.

예>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교양,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와의 간담회 등

6.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

1) 대학별 상황에 맞게 계획해보자.

예1> 학기중 주말(혹은 방학때)에 1박 2일로 '나눔의 집' 방문을 진행합니다. 이런 사업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2> 학내 강연사업, 새내기사업 등에 내용적 결합

예3> '위안부' 할머니 자원봉사 활동

2) 계기에 따른 의식화

- ILO총회 등

7. 기타 반가부장제 투쟁

1) 대학마다 문화사업을 잘 합니다.

여성문화제를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으로 여학우들이 문화를 생산하고,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학우들이 여성문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참여하여 여성문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놓는 사업방식이 필요합니다.

2) 대학별 상황에 맞게 진행합니다.

예1> 총여 소모임의 성격이 대중매체와 관련된 것이라면, 소모임에서 대중매체비평 활동을 대중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2> 대중매체 모니터링팀을 꾸려서 지속적인 활동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여성민중생존권 투쟁 및 연대사업

1. 여성민중생존권 쟁취 투쟁과 연대투쟁을 잘 하기 위하여

- 1) 먼저 주체를 마련하자
- 2) 여성 민중 생존권 쟁취 투쟁과 연대투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
- 3) 학내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직접적으로 여대생들과 연관지어서 풀어나갑시다.
 - ① 여대생 노동, 취업 문제부터 시작합시다
 - ② 총여와 연대 단체 정해서 총여 사업에 연대 단위 초청하기, 강연자로 섭외하기 등

2. 각 계급별로 보기

<여성노동자 투쟁>

- 1) 여성 노동 정세에 민감하도록 합시다.
 - ①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깊이 있게 인식하도록 합시다.
 - ②투쟁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잘 알고 의식화 하도록 합시다.
 - ③2달에 한번 여성노동계 투쟁 동향 제출
- 2) 투쟁하는 사업장에 연대 지지 투쟁을 벌입시다.
- 3)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계기로 각 지역 여성노조와의 연대를 진행합시다.
- 4) 흐름
 - 2월 - 지역여성노조와의 간담회 또는 강연 요청(가능한 대학은 새내기 사업과 결합해서 진행해도 좋겠습니다.)
 - 3.8 세계 여성의 날 - 전후로 3.8을 기념하며 함께 투쟁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나갑시다.
 - 5월 노동절 - 여성노동의 문제를 학내외에 알려나가도록 합시다.
 - 9,10월 - 여대생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여성노동에 대해 알려내기

<여성농민 투쟁>

- 1) 쌀 투쟁을 함께 벌여냅시다.
 - ①쌀 투쟁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 토론합시다.
 - ②대학 내에서 학우들과 대중적으로 쌀 투쟁을 벌여냅시다.
우리 쌀 지키기 서명운동 등 전농, 전여농에서 제기하는 투쟁을 이후에 지속적으로 벌여내도록 합시다.
 - ③우리 쌀 지키기 여성연대 활동(상층 연대 활동이 주가 될 수 있습니다.)
- 2) 농활을 통해 연대를 잘 벌여냅시다.
 - ①여성농민에 대한 교양 내실있게
 - ②여성농학 연대에 대한 관점을 올바르게 세우고 주체 마련하기

-여농학 연대 주체 또는 여성농민분반 활동 주체를 꼭 마련하도록 합시다.

-여성농민회와의 연대의 수준을 더욱 높여나가야 합니다.

③여성농민회와 여학생회간의 연대의 내용을 잘 마련해야 합니다.

3) 그 외 다양한 사업을 통한 연대

전여농 및 각 지역여농의 계획을 참조하여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시다.

통일사업 등 여성농민회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 때 그 때 꾸준히 잘 진행하도록 하며 조직적 성과로 잘 귀결시켜 나가도록 합시다.

4) 흐름

①겨울 방학 - 전여대협, 지역여대협 차원과 전여농, 도여농과의 간담회를 통해 올해 연대의 방향을 함께 얘기합시다. 가능한 단위는 총여학생회와 균여농 차원으로도 진행합시다.(이 때 전반 여성농민회의 일정을 총화하여 1년 흐름을 잡으면 더 좋겠습니다.)

②4월 - 봄농활 준비 모임을 진행한다.

③5월 말 - 봄농활 평가 및 여름농활 준비 모임을 진행한다.

④7월 - 여름 농활 평가 및 하반기 연대 계획 논의

<여대생>

1) 시기별로 의식화를 진행합시다.

-여성과 노동에 대해

-투쟁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2) 대학별로 여대생 취업에 대한 대중사업을 진행해봅시다.

-대학우 설문조사 및 취업 워크숍과 같은 대중사업

3) 흐름

3.8 - 3.8을 계기로 하여 여성과 노동의 문제에 대한 의식화를 진행합시다.

5월 노동절 - 노동절을 계기로 여성과 노동의 현실에 대한 의식화를 진행합시다.

9,10월 - 여대생 취업과 관련한 대중사업을 통해 여성과 노동에 대한 내용을 상반기 동안 알려냈던 것을 총화하고 더욱 본질적으로 의식화해나가도록 합시다.

3. 투쟁 사안별로 연대를 진행합시다.

-성폭력, 성매매, 호주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등의 문제에 대해

-효순이, 미선이 학생대책위나 통일 사업에 있어서 연대

-여성의 정치세력화 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의 연대

대중 의식화 총노선

학우들을 여학생운동의 내용으로 의식화하는 사업은 총여학생회 활동에서 우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해 각 대학 총여학생회에서 한 의식화사업을 보면,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의식화 사업이 이전보다 더 발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반성폭력, 호주제, 월경, 생리대 면세운동 등 반가부장제 투쟁에 관련된 의식화 사업이 이전보다 더욱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총여 신문 발간 등 의식화 사업이 이전보다 일상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화사업에 대한 1년 혹은 월별 계획을 마련한 대학이 거의 없이, 닥쳐서 하는 식으로 진행되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식화의 방법에 있어서도, 자보, 현수막 등 예전에 해오던 방식으로만 진행한 경우도 꽤 많습니다. 다양하지가 못하고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2003년은 대중의식화 사업에서 내용적으로나 방법적으로나 많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달라져야 할 원칙과, 구체적인 방도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각 대학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참신한 방도를 많이 고민해보고, 자기 대학에 맞는 방도를 토대로 1년의 계획을 마련해봅시다.

0. 주체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학우들의 의식을 진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대부분의 총여학생회는 이리저리한 이유로 학우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우들이 총여학생회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여가 하는 얘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학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총여가 아무리 자보를 붙이고 대중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되기 십상이며, 학우들의 의식이 얼마나 높아질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학우들의 의식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우들의 의식을 진단하고, 학우들의 의식수준에서 총여학생회 사업을 마련하고 내용을 채워넣어야 합니다.

<방도>

생각만 해보면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창조적으로 고민해봅시다.

예1> 총여학생회가 하는 주요한 얘기(예를 들면 성폭력, 여성취업, 성매매, 호주제 등)와 총여학생회 사업에 대해서 두 달에 한번 정기적인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예2> 각종 형식의 1:1 만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모 대학에서는 인터뷰 형식의 1:1만남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2. 학우들의 의식에 기반하여 대중의식화의 1년 계획을 꼭 마련합니다.

대중의식화의 1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방도만 세운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학우들의 의식에 기반하여 학우들의 의식의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높여낼 것인가를 담는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즉, 대중의식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도를 고민하고, 이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우들의 의식을 어디까지 상승시켜낼 것인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계획을 내어와야 합니다.

3. 학우들을 만나고, 학우들과 소통하자!

이제 일방적인 선전은 학우들에게 별 영향도 미치지 못할뿐더러, 총여학생회에 성과도 크게 남지 않습니다.

소통! 학우들과의 소통으로 총여학생회 의식화에 생명을 불어넣읍시다.

학우들과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방도>

예1> 1주 1회 화장실 백지자보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거나 학우들의 의견을 직접 적게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에 대해 총여학생회는 다시 백지자보를 통해 얘기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2> 마찬가지로 각종 형식의 1:1 만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형식의 1:1 만남, 도서관이나 여학생휴게실 차마시기, 과방

방문을 통한 1:1 만남, 이동 총여학생회 등

예3> 아래에서 얘기하겠지만,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가장 효율적이며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1달에 1회 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사이버 토론마당 등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의식화는 끊어지면 죽음이다! 지속적, 정기적으로 진행하자!

의식화 사업을 일회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학우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짧은 만남, 긴 이별'이라고 총여 선거때만 총여학생회가 보이고 평소에는 총여가 활동을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의식화사업을 꾸준히 할 때에만 학우들의 의식이 높아질 수 있음을 항상 각인합니다.

<방도>

예1> 위에서 얘기되는 여러 가지 방도들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예2> 총여학생회 소식을 정기적으로 알려나가기 위한 신문 발행, 소식지 발간, 학내 주요거점에 총여 매거진이라는 이름으로 선전판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부착하는 것,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정기적으로 글을 올리는 것 등도 좋은 방도입니다.

5. 인터넷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방법으로 의식화하자!

인터넷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이미 살인미군 처벌투쟁에서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시쳇말로 총여학생회가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터넷을 통해 학우들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기술적인 문제 탓은 그만하고, 인터넷 사업에 대해 대학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꾸준히 진행합니다.

- 총여 홈페이지 개설은 이제 필수입니다. 그래도 정 안되면 학우들을 대상으로 총여 홈페이지 공모전을 하든지, 그래도 안되면 카페나 커뮤니티를 대중적으로 꾸며보기라도 합니다.

- 업데이트되지 않는 홈페이지는 학우들로부터 외면받게 됩니다. 반드시 주체를 비롯해 총여 일꾼들이 꾸준히 관리해나갑니다.

- 총여 홈페이지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 그 외에도 다양한 방도들을 생각해봅시다.

<방도>

예1> 메일링리스트를 통한 뉴스레터사업. 총여가 하는 모든 행사에서 학우들의 메일주소를 수집하고, 과학생회를 통해 메일주소를 수집하여, 총여 소식이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뉴스레터로 발송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번 똑같이 총여 소식을 알리는 식으로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2> 대학 학우들이 많이 들어가는 홈페이지나 카페에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의식화를 진행하는 '일꾼 5카페' 등의 사업도 좋은 방도입니다.

예3> 인터넷을 통한 설문사업, 토론마당, 채팅(정팅), 여기서 발전되어 정모까지 하면 더할나위 없겠죠.

6. 일상의 문제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의식화 내용의 문제입니다. 학우들의 일상적인 문제를 잘 꼬집어내어 총여학생회 내용과 결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학우들의 의식에 대한 파악, 그리고 총여학생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이 함께 되어야할 것입니다.

7. 대의체계를 통한 의식화사업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중앙운영위, 단대운영위, 기층 여학단위 등을 통한 의식화 사업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방도>

예1> 모 대학에서는 과학생회장들과의 토크박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회장을 통해 과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여사업에 과를 조직화하는데서도 좋은 방법입니다.

8. 대중강좌사업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대학상황에 맞게 대중강좌사업을 적절히 진행합니다.

<방도>

예1> 1학기 1회 총여 대중강좌사업 진행

예2> 총여 대중강좌사업으로 학우들을 대중적으로 조직화하기 힘든 경우, 총학생회 등에서 진행하는 대중강좌사업에 여성관련 내용의 강좌를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도입니다.

조직시상운동

조직적 과제

1. 조직생활을 내실있게 진행합니다.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가 총화되는 것은 또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 1) 계획, 집행, 평가총화의 3박자가 잘 맞아야 합니다.
- 2) 그러면서 정세인식과 학습에 대한 조직적 담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 3) 동지애를 높이고 서로 비판 총화 혁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 2002년 수립한 장기적 전망에 따라 2003년 조직적 과제를 실현합니다!

- 1) 각 대학 총여학생회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 ① 우선, 새내기 소모임 사업에 집중합니다. 사활을 겁니다.
 - ② 그리고 과여학생회/부 건설과 단대 여학생회/부 주체 마련에 힘을 쏟읍시다.
 - ③ 1학년 여학우 대표자 협의회를 구성해 여학우 새내기들을 조직화하는 것도 좋은 방도입니다.
- 2) 지역여대협이 제 자리를 잡아가도록 합니다.
- 3) 전여대협에 대한 인식을 대내외적으로 높여나갑니다.

3. 사람중심, 대중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일상사업과 대중사업을 진행하며 사람으로 성과를 남깁시다.

- 1) 사람중심, 대중중심의 관점을 옳게 세워나갑니다.
- 2) 핵심이 핵심답게, 새나기를 빨리 핵심일꾼으로, 일꾼 혁신을 통해 대중 속의 산 일꾼이 되도록 합니다.
- 3) 대중사업과 조직사업의 한 통속으로

사상적 과제

1. 사상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세인식을 높여 나갑시다.

- 1) 사상성, 전문성 강화
- 2) 정세인식력을 부단히 높여내자
- 3) 1일꾼 1소조 갖기 운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담보해나갑시다.

2.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진행하고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갑시다!

- 1) 자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습을 진행합니다.
- 2)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을 단계적으로 논의해나갑시다.
- 3)

3.

조직, 사상적 과제를 잘 실현하기 위한 담보

1. 조직사상적 과제를 틀어쥐고 나가는 주체를 꼭 마련합니다.

- 1) 주체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도록 합니다.
- 2) 주체의 역할에 따라 회장님, 부회장님이 서로 역할을 나누어 맡을 수도 있겠습니다.
- 3)

2. 조직적으로 늘 점검되고 총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 1) 각 단위 대표자들은 늘 조직사상 영역에 대한 전반 상황을 늘 점검 총화해야 합니다.
- 2) 주체 모임을 진행합니다.
 - ① 전여대협 차원의 모임
 - ② 지역여대협 차원의 모임
 - ③ 총여학생회 차원의 모임
- 3)

3. 총화 흐름을 이렇게 잡아나갑시다.

- 1월 전여대협 겨울 수련회 - 조직 사상 영역의 내용에 대한 토론, 각 대학 조직주체 현황 파악, 짧은 모임 진행
- 2월 9기 전여대협 총회 - 각 대학 조직주체 모임 진행, 조직생활에 대한 모범 총화, 방중 학습 총화(예 : 매달 책 읽기 운동에 대한 독후감 발표 및 시상 등)
- 4~5월 전여대협 출범식을 통해 - 각 대학 조직, 소모임 주체 모임(소모임 공유, 나서는 문제 찾아보기), 소모임 경연대회 진행.
- 7월 전여대협 여름 수련회 - 각 대학 조직 주체 모임 진행, 상반기 소모임 활동 총화
- 9~10월 각 대학 조직 주체 모임 진행.

모범창출 사업

모범창출 사업을 통해 여학생운동의 정형을 창출하고 모범을 전파해나가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여대협 겨울 수련회를 평가해주세요~

지역 () 대학 () 직책 () 이름 ()

1. 수련회에 오면서 목표가 무엇이었나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했나요?

2. “2002년 이런 일이”를 듣고 어땠나요?

좋았던 점

아쉬운 점

3. 20세기 여성노동 운동사 비디오를 보고 나서 어땠나요?

4. “남북여성통일대회를 통해 본 북녘 여성과 2003년 여성통일운동의 전망” 강연을 듣고 어땠나요?

좋았던 점

아쉬운 점

이은영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5. “새로운 시대 우리는 이런 일꾼이 되어요! 아쟈^^” 강연과 토론이 어땠나요?

좋았던 점

아쉬운 점

6. “2003년을 이렇게 살아볼까요?” 총노선 강연 토론 후 어땠나요?

좋았던 점

아쉬운 점

7. "2003년 새내기, 소모임 사업에 사활을 걸어, 걸어 확 걸어요!" 강연 토론 후 어땠나요?

좋았던 점

아쉬운 점

8. 성매매에 대한 강연을 듣고 어땠나요?

좋았던 점

아쉬운 점

시로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9. 성폭력에 대한 강연을 듣고 어땠나요?

좋았던 점

아쉬운 점

강사에게 하고 싶은 말

10. 호주제에 대한 강연을 듣고 어땠나요?

좋았던 점

아쉬운 점

고은광순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11. 수련회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좋았던 점

아쉬운 점

12. '다음에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 그리고 전여대협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에 연을 높이 날려올리도록 합시다. 방학을 그 시작으로 해서 열심히 살아가자구요^^

새 시대, 그에 맞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 () 대학 () 직책 () 이름 ()

1.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2. 일꾼, 대중간부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위에서 적은 내용에 기반해 일꾼, 대중간부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2003년 주체가 극복해야 할 내용과 계획을 꼼꼼이 생각하고 적어봅시다.